■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5-457.
http://doi.org/10.17948/kcs.2022..94.415

# 대한제국 후기의 양잠정책과 양잠서적*

오진석(吳鎭錫)**

목 차

1. 서론
2. 통감부 주도의 양잠정책과 양잠교육기관 설치
3. 권업모범장 중심의 양잠서적 간행과 양잠기술
4. 식산흥업운동에 기반한 양잠서적의 간행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한제국 후기에 일제가 주도한 양잠정책과 이 시기에 간행된 양잠서적에 대해서 살핀 글이다.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군사점령한 일제는 한반도에 생사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양잠업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를 위해 권업모범장,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 잠업전습소 등이 설치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누에고치의 품질 유지를 위해 초기부터 사육법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인공양잠법을 부정하고 '절충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양잠기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권업모범장에서 간행한 『잠상요의』를 통해 이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제는 자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작잠 사육의 역할을 한반도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146).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맡기기 위해 『작잠사양법』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제의 양잠정책은 당시 식산흥업과 신식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문명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양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고, 이들에 의해 다수의 양잠서적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서적들은 일제의 양잠정책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업모범장이 제시한 양잠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주제어: 대한제국, 양잠정책, 양잠서적, 권업모범장, 식산흥업운동.

## 1. 서론

러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군사점령한 뒤 각종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근대화를 명분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하며 식민지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사개량'이라는 구실로 고문을 파견하여 농정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농상공부의 주요 관직을 일본인들이 차지하며 간섭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다.[1] 이 과정에서 그간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농업정책이나 성과는 계승이 아닌 부정과 소멸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양잠업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실 대한제국 전기에는 다양한 양잠진흥정책이 펼쳐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가진을 위시한 개화파 관료들과 일본에서 '인공양잠법'을 습득한 유학생 출신 등이 주도하여 대한제국인공양잠합자회사를 만들었으며, 그 산하에 인공양잠전습소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자극을 받은 정부에서는 이 전습소를 농상공부 산하의 잠업과시험장으로 변모시켜 양잠기술의 연구와 전파에 한층 더 힘을 기울였다.[2] 여러 양잠서적들을 간행하여 보급하였고 수백명에 달하는 인력을 배출하기도 했다.[3] 이러

1) 통감부시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權泰檍, 「統監府시기 日帝의 對韓 農業施策」, 歷史學會 編,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一潮閣, 1986; 이영학, 「통감부의 농업조사와 농업정책」, 『역사문화연구』 49, 역사문화연구소, 2014 참조.

2) 金英姬, 「大韓帝國時期 蠶業振興政策과 民營蠶業」, 『大韓帝國硏究』 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6; 吳鎭錫, 「대한제국기 人工養蠶會社와 蠶業課試驗場」, 『鄕土서울』 85, 서울역사편찬원, 2013.

3) 오진석, 「대한제국 전기 인공양잠법의 도입과 양잠서적」, 『東方學志』 197, 국학연구원, 2021.

한 노력의 결과는 민간 양잠회사와 사립 시험장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그간 축적한 양잠정책의 성과는 일제에 의해 소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잠업과시험장은 잠상시험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일시 존속되긴 했지만 결국은 폐지되어 버렸고, 잠업과시험장에서 도입해 전파하려고 했던 인공양잠법은 기대수익에 비해 위험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대신 일제는 당시 본국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던 '절충육'을 기반으로 한 양잠기술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업모범장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양잠기술에 기반한 양잠서적을 간행 배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양잠사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4] 대한제국 전기의 인공양잠회사나 잠업과시험장,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된 양잠서적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한제국 후기에 통감부와 권업모범장이 설치되면서 양잠정책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어떠한 양잠서적들이 간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것이다.[5] 일부에서 양잠서적을 언급하더라도 서지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고,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6]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사를 염두에 두고 1905년부터 1910년까지를 대상으로 양잠정책의 추진과정과 양잠서적을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이 기간에 발간된 양잠서적들의 저자와 발행처, 그리고 발간 목적과 경위 등을 상세히 살피어 이 양잠서적들에 나타나는 양잠기술의 특성과 양잠정책의 방향을 찾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과

4) 근자에 나온 잠업기술사 연구에서도 대한제국기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완주, 「잠업 기술」, 『한국농업 근현대사 제6권 농업과학기술 발달사(상)』, 농촌진흥청, 2008; 『韓國蠶絲技術發達百年史』, 韓國蠶絲學會, 2000.

5) 대한제국 후기는 1910년대 양잠정책을 다룰 때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佐々木隆爾, 「朝鮮における日本帝国主義の養蚕業政策-第1次大戦期を中心に」, 『人文学報』 114,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76; 김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뽕나무 재배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20.

6) 金榮鎭・李吉燮, 「開化期 韓國農書의 特徵과 新農業技術」, 『농업사연구』 6-2, 한국농업사학회, 2007; 김영진・이길섭, 「개화기 농서의 편찬 배경과 편찬 동기」, 『농업사연구』 7-2, 한국농업사학회, 2008.

제에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

첫째는 대한제국 후기의 양잠기술이 대한제국 전기에 농상공부 잠업과시험장에서 도입하여 전파하려 했던 양잠기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다. 전술하였듯이 대한제국 전기는 주로 인공양잠법, 그리고 후기는 절충육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양자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기술의 원천지였던 일본에서의 양잠기술 발달과정을 시야에 넣어가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7] 둘째는 분석의 범위를 일제에 의해서 간행된 양잠서적에 국한하지 않고 당시 한국인에 의해서 생산된 양잠서적들까지로 넓히는 일이다. 사실 이 시기에는 문명개화사상에 기초하여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실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식교육과 식산흥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는 양잠업의 전망을 높게 평가한 인사들에 의해 다수의 양잠서적이 출판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양잠서적들이 등장한 배경과 그 기술상의 특징, 그리고 양잠정책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피면 궁극적으로 이 시기 식산흥업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8]

## 2. 통감부 주도의 양잠정책과 양잠교육기관 설치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반도를 군사점령한 뒤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였고,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시정개선'이라는 구실 아래 재정고문을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9] 여기에는

---

7) 당시 일본의 양잠기술에 대한 개관은 松村敏, 「養蠶・解題」, 『明治農書全集 第9卷』, 農山漁村文化協會, 1983; 鈴木芳行, 『蚕にみる明治維新 : 渋沢栄一と養蚕教師』, 吉川弘文館, 2011 참조.

8) 이 시기 식산흥업운동에 대해서는 오미일, 「한말 식산흥업론의 경제건설 방안과 그 정치적 성격」, 『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김동노, 「근대 초기 서구 경제학의 도입과 식산흥업론」, 『사회이론』 43,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朴宰辰, 「대한제국 말기 식산흥업론의 전개와 성격」,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3; 金度亨,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94 참조.

9) 權泰檍,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韓國史論』 31,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4; 柳在坤, 「日帝統監 伊藤博文의 對韓侵略政策(1906~1909)-大臣會議筆記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10, 청계사학회, 1993.

한반도를 일본의 식량과 원료공급지, 상품과 자본의 수출지, 인구배출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이 추진한 일련의 개혁사업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되었다.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면서부터 내정간섭은 더욱 집요해졌고,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정부의 관료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10] 이때 임명된 일본인들은 고위 관직에 머물지 않고 중하위 관직에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 1908년 현재 농상공부의 본부는 절반이 넘는 자리가 일본인들로 채워졌고, 권업모범장·농림학교 등을 비롯한 산하기관은 일본인 비율이 80%에 육박했다.[11] 농상공부대신은 한국인이었지만, 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국장·과장, 그리고 기사·기수·주사까지 웬만한 자리들은 거의 일본인들로 채워졌던 것이다. 농상공부에서는 사실상 일본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농상공부 산하의 잠업 관련기구들도 크나큰 변화를 맞았다. 원래 대한제국 전기에 농상공부에서 농정을 담당한 부서로는 농무국이 있었고, 농무국은 농사과·삼림과·산업과·잠업과의 4개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잠업과는 양잠진흥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과장 서병숙의 지휘 아래 잠업과시험장을 운영하여 다수의 양잠인력을 양성하였고, 졸업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뽑아 잠업과 관료로 키워 가고 있었다.[12] 그런데 러일전쟁 이후 농무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일제는 1905년 2월에 칙령 제25호에 의거해 농상공부를 3국체제로 바꾸면서 농무국을 광산국(광업과·지질과)과 합쳐 농광국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농상과와 광무과만 두었던 것이다.[13] 기존의 2국

10) 鄭求先, 「統監府期 日本人 官吏 硏究」, 『國史館論叢』 77, 국사편찬위원회, 1997; 박경룡, 「統監府의 조직과 역할 고찰」, 『아시아문화』 1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3, 제3장.

11) 『職員錄』, 內閣記錄課, 1908, 415-442면.

12) 吳鎭錫, 앞의 글, 2013.

13)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42-44면; 『官報』 제3114호, 1905.4.15.

6과를 1국 2과로 줄여 버린 셈이었다. 이때의 여파로 잠업과는 사라졌고 잠업과시험장은 잠상시험장으로 바뀌어 농상과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가며 폐지 위기를 모면한 잠상시험장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06년 7월 칙령 제36호로 관제를 개정하여 농상공부를 5국체제로 전환하면서 농광국은 다시 농무국과 광무국으로 분리되었고, 농무국은 농업과와 식산과로 개편되었다.[14] 이때 잠상시험장은 주로 임업・어업・염업 등을 관장하는 식산과에 부속되었는데, 부서의 업무분장범위로 볼 때 잠업 관련 업무는 형식적인 의미만 남았을 뿐이었다. 실제로 잠상시험장은 1906년 이후에 교육기능을 친일여성단체(대한부인회)에 넘김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은 없는 상태였다. 이제 잠상시험장의 운명은 공식적인 폐지만을 앞두고 있었다.[15]

잠업 관련기구가 축소 혹은 폐지되면서 인력들도 정리된 것 같다. 잠업과장 서병숙은 농광국장(농무국장)으로 승진해 일시 농정 실무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과파천 때 일본에 망명했다가 귀국한 정진홍에게 밀려나며 중추원부찬의로 이동하였고,[16] 그런 정진홍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인에게 농무국장 자리를 넘기고 수산국장으로 옮겼다. 극히 일부만 남았던 잠업과 출신들도 양잠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17] 양잠 관련기구가 와해되고 인력들이 흩어지면서 대한제국정부는 자체적으로 잠업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동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다.

관료계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인해 업무분장에서 적지 않은 혼동과 시행착

14)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53-54면; 『官報』 제3526호, 1906.8.8. 이때의 관제 개정은 농광국을 농무국과 광무국으로 쪼갠 뒤 철도국장이 광무국장을 겸임케 함으로써 농광국장의 업무관장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15) 정확한 폐지시점은 알기 어렵지만, 1907년 12월 칙령 제57호에 의해 농상공부 농무국이 농무과・축산과・국유미간지과의 3과체제로 변경될 때 당시 개정된 농상공부분과규정에는 잠상시험장이 들어있지 않다.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Ⅵ』,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145-147면; 『官報』 제3982호 1908.1.28. 아마도 이때를 계기로 공식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6) 『帝國新聞』 1907.2.28, 3.1; 『大韓每日申報』 1907.2.28; 『皇城新聞』 1907.3.1.

17) 잠업과에서 기수로 오랫동안 근무한 박승장, 이명하는 농무국 축산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남필우는 산림국 경영과, 장성화는 수산국 염무과, 윤관의는 농림학교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職員錄』, 內閣記錄課, 1908, 415-442면.

오가 있었지만, 빈자리는 일본인들이나 친일파, 아니면 그 영향권 아래 있었던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다. 특히 농정의 수뇌부는 일본인이 장악했다. 일본 농상무성 상공국장을 지낸 기우치 쥬시로(木內重四郞)는 통감부 농상공무총장을 역임한 다음 대한제국정부 내각에 들어가 농상공부차관을 지내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관이 되어 사실상 농정을 총괄했고,[18] 통감부 농상공무부 농무과장이던 나카무라 히코(中村彦)는 그런 기우치의 밑에서 농무국장이 되어 농정 실무를 관장했던 것이다.

대한제국정부의 양잠 관련기구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해서 일제가 양잠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는 한반도의 기후와 풍토가 양잠에 매우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상무성 관료와 전문가를 파견해 수차례 양잠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19]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양잠업은 구태의연한 기술 때문에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20] 그리고 일본의 우수한 양잠법을 그대로 이식한다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의 농사개량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간 서구의 근대농법을 도입해 발전시켜 온 일본농학의 우월성을 과신하여 메이지기에 형성된 일본식 농법을 한반도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인에게 일본식 농법의 모범을 보이고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래 권업모범장을 창설하기로 하였다.[21] 이 기관의 명칭을 농사의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부

18) 馬場恒吾, 『木內重四郞傳』, 株式會社ヘラルド社, 1937.

19) 林驛作, 『韓國蠶業調査復命書』, 農商務省農務局, 1905; 町田菊次郞, 『滿韓蠶絲業調査事項報告書』, 高山社同窓會, 1906.

20) 中村彦은 한국에서 시급히 기술개량이 필요한 작물의 하나로 누에고치를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中村彦(통감부 농상공무부 농무과장), 「韓國農業改良の利益幾何」, 『韓國中央農會報』 1-1, 1906.12, 7-23면.

21)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권업모범장에 대해서는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2010; 김영진・김상겸, 「한국 농사시험연구의 역사적 고찰—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2010; 김도형, 『일제의 한국 농업정책사 연구』,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2009; 土井浩嗣, 『植民地朝鮮の勸農政策』, 思文閣出版,

각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기존의 농법을 선전·전파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모범장'으로 정했던 것은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다.[22]

1906년 6월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개장하고, 초대 장장에는 도쿄의 코마바 농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하여 축산학을 연구했으며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혼다 코스케(本田幸介)를 초빙하였다.[23] 권업모범장 잠업주임으로는 미야바라 타다마사(宮原忠正), 담당 연구원으로는 나가오카 테츠조(長岡哲三)가 선임되었고, 전국 각지에는 농상공부에서 파견한 일본인 농업기술관과 양잠기술관이 배치되었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토대로 일본식 농법과 양잠법을 대한제국에 이식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대한제국정부도 자체적으로 농사시험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1905년 10월에는 학부에서 농상공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뚝섬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였고, 농상공부에서도 별도로 수원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계획들은 권업모범장 설치 구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았다. 통감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온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뚝섬의 농사시험장은 원예모범장으로 바꾸었다가 종국에는 권업모범장의 지장으로 편입시켰고, 수원에 설치하려던 농사시험장은 잠시 장소를 대구로 변경했다가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런 경과를 볼 때 일제의 입장에서는 대한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육성해 온 잠업과시험장이나 그 후신인 잠상시험장은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멸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일본군사령부가 군사상 필요를 내세워 대한제국정부에게 필동에 있던 잠상시험장 건물을 넘겨 달라고 강요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결국 잠상시험장은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원래의 자리에서 용산 광흥창으로 급히 옮겨가야만 했다.[24] 그리고 전술하였듯이 얼마 지

---

2018 참조.

22) 당시 일제는 권업모범장의 설립목적이 농사개량의 모범을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일본의 농사시험장과는 달리 권업모범장에서는 학술연구를 하지 않을 방침을 고려할 정도였다. 『皇城新聞』 1906.6.13.

23) 구자옥 외, 『그때 이 사람, 혼다 코스케』, 민속원, 2013.

나지 않아 폐지되고 말았다.

한편, 대한제국 전기에는 농상공부 잠업과에서 설치한 양잠기구와는 별도로 용산에 내장원경 이용익이 주도하여 설치한 잠사업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이용익은 궁내부 주도로 각종 근대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25] 양잠과 제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담당할 기구들을 설치하였다. 일본에서 뽕나무 5백만주를 구입하여 용산 등지에 상원을 조성하는 한편, 용산 만리창 근처에 양잠소를 설치하는 잠사업 진흥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26] 그리고 러시아 기술자 쿠리친(Kurichin, 具理親)을 고빙하여 용산에 설립한 직조창과 이 양잠소를 연계시키고자 했다. 용산에는 양잠부터 제사, 견직에 이르는 거대 관영 직물공장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익이 만든 양잠소와 직조창은 한국경제의 재편과정에서 조속히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우선 1904년 7월 포달 제120호에 의거해 궁내부관제를 개정하여 식상・양잠・제사・직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상의사 직조과를 설치한 다음 이 기구들을 관리하도록 했다.[27] 내장원 소관 양잠소와 직조창 등을 궁내부 상의사 직조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1905년 3월에는 포달 제126호에 의거하여 상의사의 명칭을 상방사로 바꾸었고,[28] 그해 7월에는 직조과 소속 잠실과 상원 등을 대한부인회에 대여해 주도록 하여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거해 버렸다.[29] 그리고 1906년 1월에는 포달 제130호에 의거해 아예 직조과 관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30]

그런데 대한부인회는 일제가 친일 유력자 부인들을 동원해 만든 친일여성단체였다. 이 단체의 회장 이옥경은 친일파로 유명한 내부대신 이지용의 부

24) 『皇城新聞』 1905.5.25, 6.10. 잠상시험장에서는 한창 누에를 사육중이니 누에고치를 딸 때까지 십여일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다.
25) 吳鎭錫, 「光武改革期 近代産業育成政策의 내용과 성격」, 『歷史學報』 193, 역사학회, 2007.
26) 『帝國新聞』 1903.3.14, 3.18, 3.28.
27)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632면; 『皇城新聞』 1904.8.2.
28)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54면.
29) 『皇城新聞』 1905.7.29; 『統監府施政一般』, 統監府, 1907, 189-190면.
30) 宋炳基 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500-501면.

인이었으며 일본인 유력자들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31] 이옥경은 대한부인회를 바탕으로 한일부인회 창설에도 앞장서 부회장을 지냈고, 나중에는 여자교육회 총재도 역임하였다. 이옥경은 용산에 있던 직조과 소속 잠실과 상원 등을 인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용산양잠강습소를 개설하여 소장을 맡았다. 일제는 농상공부를 통해서 이 강습소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상공부기사 이와타 지로(岩田次郎)를 파견해 양잠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강습소는 표면적으로 이옥경이 소장을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타가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통감부를 위시한 일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일제는 궁내부 재산을 직접 인수하기가 부담스러워 친일단체를 중간에 세워 빌리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사실상 궁내부 재산을 뺏어 강습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32]

용산양잠강습소는 원래 여학생들을 모집해 양잠기술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첫해부터 지원하는 여학생이 거의 없었다. 계획과 달리 학생모집이 힘들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농상공부는 잠상시험장의 학생들을 강습소에 보내 교육시키도록 배려했다.[33] 잠상시험장에서는 이듬해부터는 아예 자체 학생모집을 중단하여 학생들이 강습소 쪽으로 가도록 유도했고, 강습소에서는 당분간 남학생도 입학을 허가하여 운영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노력했다. 농상공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강습소는 짧은 시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요컨대,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에서 운영하던 잠상시험장과 양잠소를 분쇄시키고 이를 물리적 기반으로 삼아 자신들이 의도하는 양잠교육기관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양잠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가르쳐

31) 丁曝淑, 『大韓帝國末期 女性運動의 性格硏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57-60면; 서영희, 「이지용—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친일파99인1』, 돌베개, 1993.
3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제실회계심사국을 맡고 있던 이용익이 궁내부 직조과의 회계문부를 조사하여 과장 손용우를 공금횡령 혐의로 징계를 요청한 일이 주목된다. 『官報』 제3193호, 1905.7.17. 이용익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양잠소를 친일단체에 대여해 준 일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33) 잠상시험장에서 용산양잠강습소에 보내 교육시킨 학생은 1906년 25명, 1907년 7명에 달했다.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34]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 용산 양잠강습소와 같이 일본식 양잠법을 전수할 새로운 양잠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다.[35] 우선 양잠업 전파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잠업전습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36] 1906년에 3,000원에 불과했던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 1908년에는 5,770원, 1910년에는 국비 8,550원과 지방비 6,958원을 합쳐 15,508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일본인 양잠기술자들도 대거 파견되었다. 해마다 변동은 있었지만, 1910년 현재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농상공부(2명)와 권업모범장(7명)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경기와 경북에 각 2명, 전남, 경남, 강원, 황해에 각 1명씩이 근무하며 각지의 잠업전습소에서 양잠법 전수를 돕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1906년에 2개소에 불과했던 양잠교육기관은 1909년에 16개소, 1910년에 34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1910년 현재 잠업전습소를 도별로 살펴보면, 함남 1, 평남 3, 황해 1, 강원 2, 경기 2, 충남 6, 전북 1, 전남 6, 경북 9, 경남 3개소가 있었다. 전습소는 거의 대부분의 도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양잠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던 경북, 충남, 전남에 21개소가 집중되어 있었다. 잠업전습소에서 배출한 졸업생수는 1906년 63명(남자 62명, 여자 1명)에서 1910년 625명(남자 509명, 여자 116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지의 양잠교육기관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해 졸업생들이 각 지방에 내려가 새로운 양잠법 전파에 앞장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갔다.[37]

---

34) 長岡哲三(勸業模範場), 「韓國蠶業の改良を計るには先づ桑及蠶種を頒布するにあり」, 『韓國中央農會報』 1-6, 1907.12, 12-17면.

35) 『帝國新聞』 1907.9.20.

36)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朝鮮ノ蠶業』, 朝鮮總督府, 1911; 「朝鮮ノ蠶業」, 『朝鮮總督府月報』 1-3, 1911.8, 1-42면; 『朝鮮支那蠶絲業概觀』, 農商務省農務局, 1913; 岩田次郎, 「朝鮮蠶業進歩の趨勢」, 『朝鮮農會報』 8-4, 1913.4, 7-12면 참조.

37) 「韓國の蠶絲業機關と農商工部補助」, 『韓國中央農會報』 3-10, 1909.10, 19-21면; 指宿武吉, 「忠淸南道の農蠶業」, 『韓國中央農會報』 4-7, 1910.7, 9-13면. 1910년 현재 양잠교사는 일본인 19명, 한국인 11명, 조수는 일본인 4명, 한국인 8명, 합계 42명이 활약하고 있었다. 「地方蠶業機關と政府の奬勵」, 『韓國中央農會報』 4-8, 1910.8, 4-6면. 일례로 광주부인잠업전습소의 교사로 있던 趙敦熙堂은 용산양잠강습소 1908년 졸업생으로 확인된다. 「韓國各地蠶業傳習所の卒業式」, 『韓國中央農會報』

전습소를 만든 이들은 대부분 도한한 일본인이거나 친일적인 한국인 유지들이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정부에서 만든 잠상시험장이나 이용익의 양잠소는 부정하고 소멸시켰지만, 일본인들과 친일세력들이 만든 잠업전습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양잠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갔던 것이다.[38]

한편, 일제가 전파하려 했던 일본 잠종과 새로운 양잠기술은 단기간에 확산시키기 어려운 일이었다. 재래의 양잠법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새로운 양잠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켜 실패할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이런 실패 사례들이 알려지면 양잠농가들이 새로운 잠종과 양잠기술을 채택하기는 더욱 망설여질 것이었다. 일제는 지방의 양잠농민들이 양잠기술자의 지도 아래 어린누에를 공동으로 사육하면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치잠공동사육소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장려하였다. 치잠공동사육소는 1908년에 처음 만들어져 1910년에는 30개소로 크게 늘어났으며 참여 인원은 673명에 달했다. 도별로 보면 충남 1, 전남 5, 경북 16, 평남 3, 강원 4, 함남 1개소였다.[39] 치잠공동사육소에는 1910년에 국비 1,395원과 지방비 400원이 보조되었으며, 여기에 고용된 양잠교사만 34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새로운 양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잠종과 상묘를 들여와 보급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에 적극 나섰다. '하루가 빠르면 하루의 이익이 있고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의 손해가 있다'고 여겨 서둘렀지만,[40]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새로운 잠종과 상묘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이 도입을 주저했던 탓이다. 이 때문에 일제는 당분간 잠종과 상묘를 무상으로 배부하기로 하고, 이를 맡길 기관으로 종묘장을 설

2-10, 1908.10, 54-59면.

38) 櫻圃山人, 「韓國農事經營錄(9)」, 『朝鮮農會報』 2-4, 1908.4, 33면; 「韓國に於ける蠶業技術者」, 『韓國中央農會報』 2-4, 1908.4, 48-49면; 「韓國の蠶絲業機關と農商工部補助」, 『韓國中央農會報』 3-10, 1909.10, 19-21면; 『大韓民報』 1909.6.17; 『大韓每日申報』 1910.8.4.

39) 「地方蠶業機關と政府の奬勵」, 『韓國中央農會報』 4-8, 1910.8, 4-6면; 『每日申報』 1910.12.4.

40) 長岡哲三(勸業模範場), 「韓國蠶業の改良を計るには先づ桑及蠶種を頒布するにあり」, 『韓國中央農會報』 1-6, 1907.12, 12-17면.

치했다. 종묘장은 1908년에 진주와 함흥, 1909년에 전주, 광주, 해주, 의주, 그리고 경성, 1910년에 공주와 춘천 등 모두 9개소가 설치되었다. 일제는 종묘장 이외에도 잠종과 상묘 배부를 위해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농상공부나 권업모범장에서 직접 보급하거나 각도를 거쳐 잠업전습소나 치잠공동사육소로 내려 보내는 방법도 사용했다.[41] 그 결과 1907년에는 배포된 잠종이 18매에 불과했지만, 1909년 2,393매, 1910년에는 8,364매로 늘어났고, 상묘는 1907년 5,300주에서 1909년 41만5천여주, 1910년 126만여주로 급증했다. 이외에도 각종 양잠기구와 제사기를 비롯해 양잠서적이나 인쇄물까지 양잠에 필요한 여러 품목들이 함께 배포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양잠기술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육법을 잘 적용하여 주변에 모범을 보여줄 양잠가가 필요했다. 일제는 초기에 일본인 이주농가에게 이 역할을 맡기고자 했다.[42] 그러나 국권침탈 과정에서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양잠가가 기대에 부합하기는 어려웠다. 일제는 그 대신 대한제국 황실과 황족, 양반 지배계층에게 모범적인 양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이 이를 본받도록 방침을 수정했다.[43] 여기에는 완순군(이재완), 영선군(이준용) 등 황족을 비롯해 총리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조중응과 전현직 학부대신, 탁지부대신, 궁내부대신, 군부대신, 시종원경 등 다수의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였고, 한성은행감사역 정영두나 창신사장 홍종완, 한성수형조합장 조진태 등 유력 상인들도 일부 가담하였다. 이들에게는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에서 제조한 잠종을 나눠주어 기르게 하고 사육과정에서는 농상공부 기술관이 순회 지도해 주었다. 누에사육은 단순히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춘, 하, 추잠이 실제로 이루어져 사육자별로 소립일, 상족일, 수견량 등과 같은 주요 결과가 일반에 공표되었다.[44] 귀부

41)「農商工部の桑苗及蠶種配付」,『韓國中央農會報』3-3, 1909.3, 52면;「農商工部の蠶業奬勵」,『韓國中央農會報』3-5, 1909.5, 32-33면;「農商工部の農蠶具配付」,『韓國中央農會報』3-5, 1909.5, 33면; 條原今藏(대구잠업전습소),「韓國の蠶業に就て」,『韓國中央農會報』3-3, 1909.3, 42-44면.

42) 中村彦,「養蠶家の韓國移住に就て」,『朝鮮之實業』10, 1906.3, 3-4면; 統監府技師 中村彦,「韓國の農業と移民」,『朝鮮之實業』27, 1907.9, 58-64면.

43)『大韓每日申報』1910.5.10, 6.19, 6.21, 7.21, 8.26.

44)『官報』제4756호, 1910.8.13;『大韓每日申報』1910.7.21;「京城に於ける兩班秋蠶飼育成績」,『朝

인들이 직접 누에를 사육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잡지에 수록되기도 했고, 단행본으로 별도 제작되어 일반에 배포되기도 했다.[45]

또한 일제는 황실의 순정효황후를 움직여 영조 43년(1767년) 이후 중단되었던 친잠례를 부활시키기도 했다.[46] 왕후가 친히 양잠에 참여하는 친잠례는 일반에 양잠을 장려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가행사였는데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다가 1909년에서야 다시 시행한 것이었다. 이 친잠례를 위해서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 주임 이와타와 그의 부인, 그리고 권업모범장 기수 나가오카 등이 잠실의 선정 및 여러 준비를 맡았고, 강습소 졸업생 이재영과 일본인 가도쿠라(門倉)가 궁녀들을 지도하며 실무를 담당하였다. 잠실은 비원 내 서향각에 설치되었으며, 상원은 창덕궁 요금문 안쪽에 마련되었다. 수확한 누에고치로 만든 생사는 대한부인회 양잠강습소에 하사하였고 일부는 제실박물관에 보존케 하였으며 나머지는 일본에 보냈다고 한다. 또한 순정효황후는 수원에 있는 권업모범장에 방문해 양잠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직원 등을 격려하기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잠업을 일반에 장려하는 令旨를 직접 내리기도 했다.[47]

한편, 일제는 메이지기 일본에서 발달한 하추잠 기술을 한반도에 이식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하추잠은 나가노(長野)현 마츠모토다이라(松本平)에서 풍혈을 활용하여 잠종을 저장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48] 누에고치 생산량을 늘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생사수출국으로 도약하

---

鮮農會報』 5-4, 1910.12, 37-38면.

45) 『韓國中央農會報』 4-7, 1910.7, 3-26면; 『蠶業之奬勵』, 韓國中央農會, 1910. 양잠에 열심히 종사하였던 한국과 일본 귀부인들의 동향을 모범사례로 소개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었다. 「京城日韓貴婦人の養蠶」, 『韓國中央農會報』 2-7, 1908.7, 58-59면. 일제는 농사개량 권고 방법의 일환으로 양반 지배층에게 권업모범장을 참관케 하고 각지에 돌아가 새로운 일본식 농법을 도입하여 일반 농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는데, 위와 동일한 맥락이었다. 中村彦, 「兩班と農業」, 『韓國中央農會報』 2-2, 1908.2, 1-5면; 櫻圃山人, 「韓國農事經營錄(11)」, 『韓國中央農會報』 2-7, 1908.7, 38-40면.

46) 「韓國皇后陛下の御親蠶」, 『韓國中央農會報』 3-4, 1909.4, 10-12면; 「親蠶收繭」, 『韓國中央農會報』 3-6, 1909.6, 17-18면; 「御親蠶經過の概要」, 『韓國中央農會報』 3-10, 1909.10, 46-48면; 『皇城新聞』 1909.4.15, 5.22, 6.12, 6.17, 6.19, 6.22, 6.23, 7.2; 『大韓每日申報』 1909.4.15, 6.17, 7.2.

47) 犀豪生(수원), 「韓國皇后陛下の養蠶御視察」, 『韓國中央農會報』 3-6, 1909.6, 10-13면; 「韓國皇后陛下の勸業模範場行啓」, 『韓國中央農會報』 3-6, 1909.6, 16-17면; 『皇城新聞』 1909.5.11, 6.3, 6.5.

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일본 각지에서는 잠종을 저장하는 풍혈이 크게 늘어나고 잠종냉장업에만 종사하는 풍혈 소유자가 등장할 정도로 성행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일년에 두 번 누에를 치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춘잠 한 번만 고집하고 있었다. 일제는 한반도의 기후나 풍토가 하추잠 사육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하추잠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일반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새로이 만든 양잠교육기관에서도 하잠과 추잠을 주요 교육과정에 넣어 가르치며 권장했다.[49] 그러나 하추잠기술을 확산시키려면 먼저 잠종저장에 이용할 풍혈을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여겼다.[50] 이에 각지에서 풍혈을 찾다가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유망한 풍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곳에 잠종저장실을 설치하기도 했다.[51]

또한 일제는 야잠이나 산누에로 불리던 작잠 사육도 장려하고 있었다. 작잠은 집에서 기르는 누에(가잠)와 달리 몸체가 훨씬 크고 뽕나무 잎이 아니라 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 잎 등을 먹고 자라는 누에를 말한다. 산누에고치는 집누에에 비해서 품질은 떨어졌지만 청백색, 황금색, 적색 등 다양한 빛깔을 띠었고 실로 만들면 비교적 저렴한 데다가 굵고 질긴 성질 때문에 교직물 직조에 많이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도 작잠사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 1894년에는 1만근에 불과했지만 1902년에는 40만근에 이르고 있었다.[52] 그러나 작잠은 기후나 풍토로 보아 일본 내에서의 생산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량의 대부분을 청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일본정부는 과도한 수입의존이

48) 풍혈은 주로 산기슭에 위치하며 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구멍이나 바위틈을 말한다. 『한국의 풍혈』, 국립수목원, 2013.

49) 岩田次郎(용산), 「隆熙元年度大韓婦人會養蠶講習所事業一般」, 『韓國中央農會報』 2-3, 1908.3, 20-22면

50) 수원 華城蠶史, 「風穴の懸賞探索は如何」, 『韓國中央農會報』 2-11, 1908.11, 41-43면.

51) 長阜生(수원), 「氷山風穴を觀る」, 『韓國中央農會報』 3-10, 1909.10, 40-41면; 「氷山風穴」, 『韓國中央農會報』 3-12, 1909.12, 13-16면; 「氷山風穴完成と蠶種貯藏開始」, 『朝鮮農會報』 5-3, 1910.11, 40-42면; 『朝鮮農務彙報 第三』, 農商工部農林局農務課, 1912, 102-111면. 1910년 말에는 경북 선산군 하고미면 금오산에 있는 풍혈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金烏山風穴の蠶種貯藏試驗」, 『朝鮮農會報』 5-4, 1910.12, 37면.

52) 中村彦, 『柞蠶絲輸入税率增減問題』, 丸山舍, 1903.

일본 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때 수입세율 인상까지 검토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일제는 압록강을 두고 청국 안동현과 바라보고 있는 평안도 지방이 작잠사육에 적절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다.[53] 권업모범장이 개장 초기부터 한반도에서 작잠사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 차례 조사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54] 조사 결과 한반도의 기후와 풍토가 작잠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이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비롯해 새로운 양잠교육기관을 만들어 일본식 양잠법과 잠종, 상묘 등을 보급하고 작잠사육을 장려하여 한반도를 누에고치의 생산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착착 추진하고 있었다.

## 3. 권업모범장 중심의 양잠서적 간행과 양잠기술

일제는 권업모범장,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 각지의 잠업전습소 등 양잠교육기관의 설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양잠서적 간행을 통해 새로운 양잠기술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기술은 당시 일본에서 표준사육법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절충육'을 기반으로 하였다.

사실 메이지기 일본에서는 서구로부터 다양한 양잠, 제사 기술을 받아들이는 한편 각지에서 그 지방 기후와 풍토에 맞는 독자적인 기술을 고안해 내며 양잠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다.[55] 특히 민간의 잠종제조가, 잠종상인들에

---

53) 山田熙(신의주이사청), 「柞蠶と平安北道」, 『韓國中央農會報』 1-3, 1907.9, 18-20면; 山田熙, 「北韓の柞蠶」, 『韓國中央農會報』 호외, 1907.12, 23-31면.

54) 「統監府勸業模範場」, 『韓國中央農會報』 1-1, 1906.12, 47-48면; 長岡哲三(統監府 勸業模範場技手), 「柞蠶飼養成蹟報告」, 『韓國中央農會報』 1-2, 1907.2, 35-40면; 長岡哲三, 「柞蠶飼養の實驗(1)」, 『韓國中央農會報』 2-3, 1908.3, 17-19면; 長岡哲三, 「柞蠶飼養の實驗(2)」, 『韓國中央農會報』 2-7, 1908.7, 12-15면.

55)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松村敏, 앞의 글, 1983; 鈴木芳行, 앞의 책, 2011; 滝沢秀樹, 『繭と生糸の近代史』, 教育社, 1979; 松浦利隆, 『在来技術改良の支えた近代化 : 富岡製糸場のパラドックスを超えて』, 岩田書院, 2006; 手打明敏, 「明治期養蚕伝習所の技術普及活動と農民の学習」, 『淑徳大学研究紀要』 18, 淑徳大学総合福祉学部, 1984; 手打明敏, 「明治前期における養蚕改良団体の技術普及活動」, 『淑徳大学研究紀要』 20, 淑徳大学総合福祉学部, 1986; 加藤伸行, 「明治中期西日本地域における養蚕伝習所の活動と養蚕技術」, 『歴史と経済』 56-1, 政治経済学・経済史学会, 2013; 土金(土井)師子, 「明治期の日本養蚕業と養蚕書」, 『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26, 日本女子大学大学院, 2020 참조.

의해서 다양한 누에품종의 개발과 사육기술의 개량이 시도되어 지역별로 양잠기술이 백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양잠장려단체를 조직하고 전습소를 설치하며 양잠서적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잠농가에게 개량된 양잠기술을 교육하였다.

당시 성행하던 양잠기술은 크게 세 계통으로 나뉜다. 첫째는 '온난육'으로 잠실의 온도를 화씨 80도(26.7℃) 이상으로 올려 사육하는 방법이다. 고온으로 사육함에 따라 누에의 사육일수가 대략 25일로 줄어들어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탄산가스가 발생하여 누에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높은 사육법이었다. 둘째는 '청량육'으로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지 않고 천연기후에 맡겨 사육하는 방식이다. 서늘한 온도와 통풍을 강조하는 이 기술은 사육일수가 40~50일로 길어져 경제성이 떨어지고 습기에 취약한 단점이 있지만, 공기가 청결하여 잠병에 걸릴 위험이 작은 장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여 보완한 '절충육'이었다. 고온육처럼 높은 온도를 유지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까지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 대체로 화씨 70~75도(21~24℃)를 유지하였다. 청량육에 비해서는 사육일수가 약 30여일로 짧아 경제적 이점을 일부 누릴 수 있으면서도 사육온도를 지나치게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탄산가스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양잠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영 도미오카제사장(富岡製絲場)이 설립되면서 기계제사업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 최대의 생사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사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국으로부터 생사의 품질을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실 당시 일본은 민간에서 개발한 다양한 잠종 때문에 누에고치의 품질이 고르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가지각색의 누에사육법이 생산량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지만 누에고치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생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균질한 누에고치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아 잠종을 통일하고 양잠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농상무성 잠업시험장(잠업강습소)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거쳐 1889년에 사육표준표를

정하기에 이르렀다.[56] 이 사육표준표는 온난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으면서 청량육에 비해서는 경제적 이점을 다소 확보할 수 있는 절충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절충육이 서서히 자리를 넓혀가기 시작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한 일제는 본국이 세계적인 생사 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해 보호통치 하에 놓인 한국에게는 원료인 누에고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누에고치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는 초기부터 사육법의 통일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인공양잠법을 도입해 잠업과시험장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를 개량시켜 보급해 가고 있었다.[57] 원래 인공양잠법은 일본 도쿠시마(德島)현 출신 요코타 카츠조(横田勝三)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누에 사육에 중요한 요소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사육일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필요 인력과 사료 등을 절감하려는 기술이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양잠장치를 활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였는데, 춘잠의 경우 보통 온도를 화씨 85도(29.4℃) 이상으로 올려 20일 안팎으로 사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높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일본에서도 등장 초기부터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었다. 잠업과시험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린누에는 인공육으로 기르고 큰누에는 천연육으로 기르는 일종의 '혼합육'을 모색해 나갔다.

그러나 통감부에서는 대한제국 전기에 잠업과시험장에서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었던 '인공양잠법'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미 일본 농상무성 도쿄잠업강습소에서 인공양잠법에 대해서 시험해 본 결과 잠아의 발육이 불량하고 누에고치의 품질도 좋지 않아 기계제사의 원료로 사용할 수

56) 土金師子, 「明治前期における日本養蚕業の技術的動向と「養蚕標準表」」, 『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15, 日本女子大学大学院, 2009.
57) 이하 별다른 주가 없는 한 오진석, 앞의 글, 2021 참조.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일을 근거로 삼았다.[58] 기대수익에 비해 위험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공양잠법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에서 표준사육법으로 지정한 '절충육'에 기반해 양잠기술을 도입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메이지기 서구에서 지식을 수입해 만들어 간 일본 농학에 대한 자만심, 우월의식이 깔려 있어서 일본정부가 선택한 양잠법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가 야심차게 설치한 권업모범장과 친일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를 내세워 만든 용산양잠강습소, 그리고 각지의 잠업전습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기관들에 의해 다수의 양잠서적이 발간되기 시작했다.

용산양잠강습소에서 사용된 교재 중에서는 현재 『養蠶法』(1-1)과 『養蠶法日記』(1-2)가 전해지고 있다. 두 권 모두 필사본이라서 정식 출판된 책은 아니다. 『양잠법』은 표지에 "丙午 五月"이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1906년 5월경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지에는 "용산 만리창 양잠학교 졸업생 崔炳斗", 그리고 뒤표지에 "용산잠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양잠법일기』도 앞표지에 "광무 10년 5월 28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속지에 "대한부인양잠소 崔炳斗"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병두는 원래 잠상시험장 소속이었지만,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1906년 9월에 졸업한 인물이다.[59] 이를 통해 볼 때 이 책들은 모두 최병두가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에서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58) 土屋泰, 「人工養蠶法試驗」, 『蠶事報告』 16, 1900, 186-194면; 『蠶絲要報(甲)』, 東京蠶業講習所, 1905, 128-129면.
59) 『官報』 제3565호, 1906.9.22; 『萬歲報』 1906.9.22.

〈표 1〉 대한제국 후기 일제의 잠업기관에서 만든 양잠서적

| 번호 | | 서지사항 | 사용처 | 비고 |
|---|---|---|---|---|
| 1-1 | | 『養蠶法』, 1906 | 용산잠업장 | 필사본<br>국한문 |
| 1-2 | | 『養蠶法日記』, 1906 | 대한부인양잠소 | 필사본<br>국한문 |
| 1-3 | | 「養蠶의 話(1)~(5)」, 1908<br>(『韓國中央農會報』 1-6~2-5, 1907.12~1908.5)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1-4 | ① | 「蠶桑의 要義」, 1910<br>(『韓國中央農會報』 4-2~4-3, 1910.2~3)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 ② | 『蠶桑要議』, 勸業模範場, 1910.3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 ③ | 『蠶桑要義』,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1911.3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 ④ | 勸業模範場, 「養蠶大要」, 1911<br>(『朝鮮農會報』 6-4~6-5, 1911.4~5)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1-5 | ① | 長岡哲三, 「柞蠶飼養法」, 1909<br>(『韓國中央農會報』3-2~3-7, 1909.2~7)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국한문 |
| | ② | 長岡哲三, 「柞蠶飼養法」, 1909<br>(『韓國中央農會報』 3-2, 1909.2 부록)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일문 |
| | ③ | 『柞蠶飼養法』,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1912 | 권업모범장 | 활자본<br>일문 |
| 1-6 | | 『養蠶學』, 1911 | 잠업전습소 | 필사본<br>국한문 |
| 1-7 | | 『養蠶須知』, 연도미상 | 잠업전습소 | 필사본<br>국한문 |
| 1-8 | | 『누에기르는 법』, 1911 | 잠업전습소 | 필사본<br>순국문 |

전술하였듯이 이 강습소는 원래 이용익이 만든 양잠소에서 유래했다. 러일전쟁 이후 친일 고관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부인회에서 양잠소 건물과 토지를 대여 받아 양잠강습소로 개편한 곳이었다. 그러나 강습소장 이옥경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이고 농상공부에서 파견된 일본인 기사 이와타 지로(岩田次郎)가 학생들을 지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1910년 1월 29일 여자잠업강습소관제가 발포됨에 따라 용산양잠강

습소는 다시 변화를 맞았다. 이 법령에 따라 대한부인회의 양잠강습소는 사업 일체가 농상공부에 반환된 다음 권업모범장 용산지장의 여자잠업강습소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60] 이에 양잠강습소의 주임이었던 이와타는 권업모범장의 기사로 신분이 바뀌어 새로운 여자잠업강습소의 소장을 맡았다. 강습소는 그동안 겉으로나마 한국인 여성단체에 소속된 기관이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권업모범장 산하기관으로 바뀌면서 일제가 만든 양잠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확고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타는 도쿄제국대학 농과를 졸업하고 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의 잠종검사소장, 동현의 농사시험장 기사 등을 지냈으며 청국에서도 농사시험장 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전도유망한 잠업기술자였다.[61] 그는 도쿄제국대학 교수 오오모리 쥰조(大森順造)와 함께 『일본잠업혁진책』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 일본에 근대 양잠법을 도입했던 양잠학의 대가 사사키 나가아츠(佐々木長淳)의 장남이자 잠병학 전문가이며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사사키 츄지로(佐々木忠次郎)의 지도를 받아 『통속양잠술강의』라는 책을 저술한 적도 있었다.[62]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양잠법』과 『양잠법일기』는 이와타가 용산양잠강습소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강생이 옮겨 적은 일종의 강의노트라고 생각된다. 책 내용의 일부가 이와타가 쓴 『통속양잠술강의』와 비슷한 점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사실 당시 농상공부나 권업모범장은 도쿄제대나 도쿄잠업강습소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63] 농무국장 나카무라 히코를 비롯해 권업모범장장 혼다 코스케와 잠업주임 미야바라 타다마사는 모두 이와타와 같은 도쿄제대 출신이었다. 게다가 권업모범장 잠업 담당 기수였던 나가오카 테츠조는 도쿄제대와 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도쿄잠업강습소

60) 『官報』 제4590호, 1910.1.31; 「女子蠶業講習所官制」, 『韓國中央農會報』 4-2, 1910.2, 34면.
61) 『在朝鮮內地人紳士銘鑑』, 朝鮮公論社, 1917, 22면.
62) 大森順造・岩田次郎, 『日本蠶業革進策』, 蠶業之燈社, 1899; 岩田次郎, 『通俗養蠶術講義』, 蠶業之燈社, 1900.
63) 이송순, 「도쿄(東京)제국대학 농대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농업고등기술관료 그룹의 형성」, 『韓國人物史硏究』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출신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도쿄잠업강습소에 의해서 표준사육법으로 지정된 절충육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양잠법』과 『양잠법일기』 역시 절충육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책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목차가 없으며 체계적으로 작성되지도 않았다. 기록은 두서가 없이 혼재되어 있으며 중복 기재된 부분도 적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징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잠법』과 『양잠법일기』는 수록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양잠법일기』가 조금 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잠종, 잠실, 누에의 생리, 잠병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편 급상, 제사, 분박, 상족, 살용 등 누에사육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양잠기술 동향을 소개하면서 청량육, 온난육, 절충육, 인공양잠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며, 하추잠 기술의 도입을 강조하여 산골짜기 제일 차가운 곳에 땅을 파 잠종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에서 적당한 풍혈을 발견하기 전이었으므로 이를 대신할 土藏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누에의 나이별, 날짜별 사육표준도 수록되어 있다. 춘잠의 적정온도를 화씨 70도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육기간은 35일 이상이 소요되었다.[64] 대한제국 전기에 도입된 인공양잠법은 화씨 90도 이상의 고온도로 사육하고 사육기간이 20일 전후가 걸렸던 점과 크게 대비된다. 용산양잠강습소에서는 절충육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용산양잠강습소에 이어 권업모범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제는 양잠서적의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잠서적은 최종적으로 『蠶桑要義』(1-4)로 귀착되었는데 그 전에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養蠶의 話」(1-3)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韓國中央農會報』에 총5회에 걸쳐 실려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서적은 아니지만 양잠기술 보급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한국중앙농회보』는

64) 岩田次郎(용산), 「大韓婦人會養蠶成蹟」, 『韓國中央農會報』 1-3, 1907.9, 30면.

원래 일본어로 발행되었지만, 독자층을 한국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1907년 12월호부터 한국어 부록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글은 한국어 부록 편성 이후 첫 번째로 실린 원고였다. 일제가 양잠기술 보급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글은 누에의 일생과 누에의 종류, 잠종에 대해서 언급한 뒤 양잠의 준비과정과 함께 최청, 소립, 급상, 除沙 및 분박, 면기, 상족, 수견 등 누에의 사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잠병, 하추잠, 製絲 등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덧붙이고 있다. 특별히 온도에 따른 사육법을 정확히 구분해 권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간에 72~73도로 보온하라는 구절로 보아 대체로 절충육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65] 아직 풍혈을 발견하지 못해 종자를 저장하기 어려우니 당분간 춘잠과 하잠에만 전념하고 추잠은 후일을 기다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66]

원고의 분량이 많지 않아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지만, 농가에서 양잠을 할 때 필요한 기초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으리라고 생각된다. 되도록 평이한 용어와 국한문체로 작성되어 있는 점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맨 마지막 부분인 〈부언〉에는 양잠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가 요청할 경우에는 권업모범장에서 상묘와 잠종을 나누어줄 것이고, 기술에 관해 질의하면 권업모범장의 전문기술자가 친절히 가르쳐 줄 것이며 서면으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육법의 방향은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일단 일본식 양잠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을 희석하고 양잠을 장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권업모범장에서는 한국 양잠농가의 실정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양잠 실험을 한 결과 한반도의 기후상 춘잠, 하잠, 추잠 모두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춘잠에서는 소석환과 청숙, 하잠에서는 신옥, 추잠에서는 2화성 백룡과 1화성 청숙중소 등이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장려하기로 했다.[67]

---

65) 「養蠶의 話(3)」, 『韓國中央農會報』 2-3, 1908.3, 3-5면.
66) 「養蠶의 話(2)」, 『韓國中央農會報』 2-1, 1908.1, 3-4면.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양잠법을 정리하여 『蠶桑要義』(1-4-②)에 담았다. 이 책의 원고 역시 국한문체로 작성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시기 『한국중앙농회보』(1-4-①)에도 수록되었다. 일제는 그 이듬해에 곧바로 개정판(1-4-③)을 발간하였는데, 둘 사이에는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동안 변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일부 문장에 첨삭을 가하고 도판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예를 들어 초판에 들어 있던 황후의 친잠례를 통한 양잠 장려 사실이 개정판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또한 개정판에는 온도계와 습도계의 그림이 추가되어 있으며, 국한문체로 서술한 본문 중에서 한글 위에는 작은 첨자로 일본어 후리가나를 달아 두었다. 한국인 양잠농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이주한 양잠농가도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다. 개정판이 발간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이 『조선농회보』(1-4-④)에도 총2회에 걸쳐 수록되었다. 다만 분량을 줄이기 위해 도판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조선농회보』는 『한국중앙농회보』의 후속 잡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1년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잡지에 같은 글이 재수록된 셈이다. 일제가 양잠법 보급을 위해 제작한 『잠상요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잠상요의』의 간행목적은 일제가 권업모범장에서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확립한 표준적인 양잠기술을 확정하고 이를 농촌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데에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권업모범장에서 양잠법을 연구하고 있던 나가오카 테츠조(長岡哲三)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오카는 도한하기 전에 일본에서 『통속잠병예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으며,[68] 후술하겠지만 권업모범장에서 편 『작잠사양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

67) 長岡哲三(권업모범장), 「養蠶の實驗」, 『韓國中央農會報』 1-3, 1907.9, 14-18면; 長岡哲三, 「養蠶の實驗(承前)」, 『韓國中央農會報』 1-4, 1907.10, 10-12면; 長岡哲三, 「養蠶の實驗(承前)」, 『韓國中央農會報』 1-5, 1907.11, 8-12면; 宮原忠正・長岡哲三, 「家蠶飼育成蹟」, 『勸業模範場報告』 2, 1907; 宮原忠正・長岡哲三, 「家蠶飼養成蹟」, 『勸業模範場報告』 3, 1908.

68) 岩淵平介・長岡哲三, 『通俗蠶病豫防法』, 明文堂, 1903. 이 책의 서문을 쓴 혼다 이와지로(本多岩次郎)는 코바마농학교(도쿄제대 농과 전신) 출신이며 도쿄잠업강습소 기사를 거쳐 소장에 오른 거물급 인사였으며, 교열은 본 하야시(林驛作)는 도쿄제대 출신으로 동경잠업강습소의 기수와 기사(나중에 농상무성 기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나가오카와 도쿄잠업강습소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잠상요의』는 크게 재상과 양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상과 관련하여 뽕나무의 종류, 재식법, 배양, 관리, 해충피해 등을 다루었고, 양잠과 관련해서는 잠실, 잠구, 잠종을 다룬 다음 양잠 준비과정에 이어 최청, 소립, 급상, 除沙, 분박, 면기, 상족, 수견 등의 사육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육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하추잠, 잠병, 살용, 製絲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잠상요의』를 「養蠶의 話」(1-3)와 비교하면 재상 관련 내용이 추가된 점이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잠상요의』는 분량과 내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양잠법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때문에 製絲 관련 내용은 극히 소략하게 취급했다. 한국인 양잠농가에게 누에고치의 생산만을 맡기고 제사작업은 일본에 있는 기계제사공장에 맡기려고 했던 일제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를 대한제국 전기를 대표하는 양잠서적 『잠상휘편』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잠업과시험장에서 편찬한 『잠상휘편』에서는 제사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69]

『잠상요의』는 전체 분량도 상, 하권으로 이루어진 『잠상휘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양잠과 관련된 기초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잠상요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농가의 현실을 일부 반영하려고 했던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양잠농가들에게 잠실 신축을 바라기는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하여 우선 천정에 환기창과 연돌 등을 설치하고 나중에 가산이 풍족해지면 가옥의 개량을 하도록 제안했다. 한국 재래종인 3면잠은 견질이 열등하니 피하고 반드시 일본종 4면잠을 사육하도록 권고하기도 했고, 특히 한국 재래의 관습 중에서 누에알을 보관할 때 재를 덮거나 어즙, 소변 등에 담그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의 재래 양잠법에 대한 불신을 엿볼 수 있다.

『잠상요의』는 단순히 권업모범장 내에만 배포되어 활용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잠업전습소 등지에서

69) 『잠상휘편』은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6장에서 설명된 제사관련 기술은 하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잠상휘편 상』, 1904, 〈목차〉.

교재로 사용했던 것 같다. 특히 1911년에 필사된 국한문체의 『養蠶學』(1-6)과 연도미상의 필사본 『養蠶須知』(1-7), 그리고 순한글로 기록된 『누에기르는 법』(1-8)이 주목된다. 이 책들의 내용은 『잠상요의』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일제는 통감부 산하 권업모범장을 통해 표준적인 양잠법을 확정하여 『잠상요의』와 같은 양잠서적을 간행하는 한편 잠업전습소 등을 통해 이 새로운 양잠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0]

이 서적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잠학』은 기본적으로 『잠상요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목차와 구성은 동일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뽕나무 노상의 경우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과도하면 잠아의 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잠상요의』에는 아예 없던 實播法이 삽입되어 있거나 건습계나 잠종의 감정, 누에 사육과정이나 제사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양잠수지』는 『양잠학』과 거의 모든 문구가 일치한다. 아마도 동일한 서적을 필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양잠학』에 들어 있는 그림이 『양잠수지』에는 생략되어 있는 점만 다르다. 『누에기르는 법』은 순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부 내용 중에 "작년 황후폐하게압셔 친히 뉘에를 기르사"라는 구절로 보아 권업모범장에서 간행한 1910년판 『잠상요의』를 저본으로 삼아 작성된 것 같다. 다만 표지에 "명치 44년 9월 5일"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작시점은 1911년일 것이다. 내용은 『잠상요의』와 동일하지만,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상대로 양잠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한글로 기록한 것 같다.

그런데 권업모범장에서 『잠상요의』를 통해 확립된 양잠기술은 1920년대까지도 표준적인 양잠기술로서 거의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1910년대 초 일본인이 지은 『朝鮮農業要覽』은 물론이고 1910년대 말 수원농림학교 교수를

70) 『양잠학』이나 『양잠수지』에서 잠박을 설명하는 대목 중에 나오는 "본 전습소에서 제작한 잠박"은 간편하고 값이 싸서 사용하면 이익이 있다는 구절로 미뤄 보면 이 책들은 잠업전습소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지낸 윤태중이 지은 『朝鮮農業大全』이나 1920년대 초 양재기가 쓴 『朝鮮副業全書』의 〈양잠편〉에서도 『잠상요의』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전재되어 있다.[71] 대한제국 후기에 권업모범장에서 보급하려 했던 양잠기술이 1920년대 전반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술하였듯이 통감부시기 양잠정책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작잠사 육을 크게 장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09년에 국한문체로 작성된 「柞蠶飼養法」(1-5-①)이 주목된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어로 작성된 원고가 같은 제목으로 『한국중앙농회보』에 연재(1-5-②)되었고, 1912년에는 일본어 단행본 『柞蠶飼養法』(1-5-③)으로 제작되기도 했다.[72] 잡지에 실린 일어본에는 본문 이외에 서문, 서언, 결론 등이 추가되어 있다.

『작잠사양법』의 저자는 권업모범장 기수로 근무하던 나가오카 테츠조이다. 메이지기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잠서적이 전문가들에 의해 간행되는 와중에서도 작잠 서적은 드물었고 관련 전문가는 희귀했다. 일본의 기후나 풍토가 작잠 사육에 맞지 않아 이를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가오카는 일본에서도 희귀한 작잠 전문가였기 때문에 권업모범장 기수에 발탁되었던 것 같고,[73] 부임 이후 권업모범장장 혼다로부터 직접 작잠사양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강력하게 권유 받았다고 한다.[74] 『작잠사양법』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산누에라고도 불리던 작잠은 일반 집누에와는 사육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

71) 式田清三, 『朝鮮農業要覽』, 日韓書房, 1911, 493-523면; 尹泰重, 『朝鮮農業大全』, 中央興農會, 1918, 467-556면; 梁在璣, 『朝鮮副業全書』, 朝鮮副業奬勵會, 1923, 60-89면.

72) 집누에 사육법을 다룬 『잠상요의』의 경우 국한문체로 작성된 원고가 1910년 『한국중앙농회보』에 실린 다음 곧바로 단행본으로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작잠사양법』도 1910년 이전에 국한문으로 작성된 단행본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까지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73) 당시 일본에서는 도쿄잠업강습소에 근무했던 니와 시로(丹羽四郎)가 쓴 『實驗柞蠶論』이 가장 유명한 작잠사육법 서적이었다. 그런데 니와는 이 책 서문에서 잠업강습소 기사였던 이시와타리 시게타네(石渡繁胤)의 도움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나가오카 테츠조(長岡哲造)를 언급하고 있다. 丹羽四郎, 『實驗柞蠶論』, 丸山舍, 1903, 1-2면. 이 나가오카는 아마도 長岡哲三을 가리키는 것 같다. 造와 三은 일본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자 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가오카는 일본에서도 희귀한 작잠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74) 長岡哲三, 「柞蠶飼養法」, 1909(『韓國中央農會報』 3-2, 1909.2 부록), 〈自序〉.

다. 보통 춘잠과 추잠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 등의 잎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지 않고 사료수가 다량 서식하는 곳에 방사하여 길렀다. 최대한 야생 상태에 가깝게 키우기 때문에 사육기간도 43~49일(춘잠 기준)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집누에에 비해서 잠병의 피해는 적지만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비바람, 우박의 피해를 입기 쉽고 조류나 개구리, 다른 곤충 등 천적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였다. 집누에 사육과 비교하면 잠실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고 잠구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지만 대규모 사료수림을 갖추어야 하고 잠종보관, 수견, 살용, 저견 방법이나 제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식을 구비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권업모범장에서는 작잠 서적을 별도로 제작해 사육법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던 것이다.

## 4. 식산흥업운동에 기반한 양잠서적의 간행

대한제국 후기에는 일제가 만든 양잠서적만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양잠서적이 간행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는 문명개화 사상에 입각한 식산흥업운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세간에서는 적자생존, 우승열패와 같은 사회진화론의 법칙이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제국이 독립을 지킬 방안은 식산흥업과 신식교육을 통해 하루빨리 문명개화하는 방법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75] 이는 경제적 실력을 양성하여 자본주의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일이야말로 국권회복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76]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호통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본받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었다.[77]

이러한 시각 아래 양잠업은 국부를 증진할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다.[78] 심

75) 오미일, 앞의 책, 2002; 김동노, 앞의 글, 2013; 朴宰辰, 앞의 글, 2003.
76) 玉東奎, 「實業의 必要」, 『西友』 8, 1907.7, 28-31면.
77) 金度亨, 앞의 책, 1994, 65-84면.
78) 雙城樵夫, 「桑苗의 喜消息」, 『太極學報』 24, 1908.9, 48-51면; 盧庭鶴, 「現世蠶業大勢」, 『大韓學會

지어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원인은 양잠 덕분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올 정도였다.[79] 전술하였듯이 일제의 잠업정책에 호응하여 한국인들이 설립한 잠업전습소나 치잠공동사육소 등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 또한 당시 황실을 비롯한 지배층이 나서 양잠을 적극 장려한 일도 일차적으로는 일제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세간에 퍼진 식산흥업운동의 열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80]

한편, 양잠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온난육, 청량육, 절충육과 같은 일본의 최신 양잠기술 동향이 일반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특히 일제가 주도하는 양잠정책에 영향을 받아 러일전쟁 이전에 대한제국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인공양잠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일제가 새로이 보급하려는 절충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갔다. 고온다습한 양잠장치를 활용하는 인공양잠법은 잠아를 허약하게 만들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나 "不寒不溫" 중간을 취하는 절충육이 적당한 화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에의 건강에 좋고 경제적인 양잠법이라는 주장이 통용되었다.[81]

양잠을 장려하는 분위기 아래에서 신문이나 잡지에도 양잠법이나 뽕나무 재배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재되기 시작했다.[82] 또한 식산흥업운동에 의해 민간회사의 설립 열기가 고양되는 가운데 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설립도 이어지고 있었다. 학현잠업회사, 잠업광달회사, 대한작잠조합, 작잠합자회사, 한국작잠주식회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83] 이와 함께 신식교육을 강조하는 실력양성운동론자들에 의해 농업교육기관들이 설치되기도 했다. 신흥잠

---

月報』 3, 1908.4, 43-45면; 『皇城新聞』 1906.11.16.

79) 金載汶, 「蠶學說」, 『大韓學會月報』 8, 1908.10, 25-29면.

80) 특히 순정효황후가 참여한 친잠례는 세간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梁東衡, 「皇后陛下親蠶成績에 對ᄒᆞ야 區區感淚로 同胞의게 勸勉ᄒᆞᆷ」, 『西北學會月報』 15, 1909.8, 7-9면.

81) 金載汶, 「蠶學說」, 『大韓學會月報』 8, 1908.10, 25-29면; 愼尙翼, 「人爲的 保護淘汰로 養蠶의 原因을 論ᄒᆞᆷ」, 『大韓興學報』 5, 1909.7, 28-31면; 盧庭鶴, 「韓國蠶業에 對한 意見」, 『大韓興學報』 1, 1909.3, 42-47면.

82) 「農業概要-桑樹栽養法 養蠶法」, 『帝國新聞』 1907.12.24.~1908.1.8.; 「桑樹栽培法譯」, 『西北學會月報』 15, 1909.8, 9-21면.

83)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246-247면.

업강습소(융흥농림강습소)나 서북학회에서 운영한 농림강습소가 그 예였다.[84] 이를 계기로 민간 회사나 교육기관에서 제작한 양잠서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표 2〉 대한제국 후기 한국인에 의해 간행된 양잠서적

| 번호 | | 서지사항 | 사용처 | 비고 |
|---|---|---|---|---|
| 2-1 | | 鄭宇相 編,『養蠶實驗說』, 蠶業廣達會社, 1908 | 鶴峴蠶業會社 | 활자본<br>국한문 |
| 2-2 | | 文錫琬,『新訂蠶業大要』, 普成舘, 1909 | 隆興農林講習所 | 활자본<br>국한문 |
| 2-3 | | 文錫琬,『最新柞蠶學』, 同文館, 1909 | 융흥농림강습소 | 활자본<br>국한문 |
| 2-4 | | 李秉賢,『柞蠶飼養法』, 柞蠶合資會社, 1909 | 작잠합자회사 | 활자본<br>국한문 |
| 2-5 | ① | 『柞蠶飼養新書』, 1909(?)(충남대 소장) | 대한작잠조합(?) | 필사본<br>국한문 |
| | ② | 『柞蠶飼養新書』, 1909(?)(국회도서관 소장) | 대한작잠조합(?) | 활자본<br>국한문 |
| 2-6 | | 鄭宇相,『桑樹栽培法』, 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 | 활자본<br>국한문 |

먼저 중추원의관, 칠원군수 등을 지낸 김병선은 안의군 북상면 학현에 잠업전습소를 개설하여 양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학현잠업회사를 설립해 잠종과 상묘 판매에 나섰다.[85] 사업이 확장되자 그는 한성 서부 廉洞에 별도로 잠업광달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동향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잠업을 전공한 정우상을 발탁해 학현잠업회사의 간사에 등용하고 양잠서적을 제작하도록 했다. 잠종이나 상묘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에게 양잠서적을 판매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

『養蠶實驗說』(2-1)은 바로 이런 배경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책은 정

84) 金英宇,『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1997, 475-481면.

85)『大韓每日申報』 1906.2.28, 6.17, 1908.6.24.;「慶尙南道安義郡蠶業」,『韓國中央農會報』 3-1, 1909.1, 21-22면;「産業界の功勞者金秉先君」, 靑柳綱太郎,『新朝鮮成業銘鑑』, 朝鮮硏究會, 1917, 경남 56-61면.

우상의 저술이 아니라 일본 도쿄잠업강습소의 강사 츠치야 야스시(土屋泰)가 쓴 『實驗養蠶法』을 번역한 서적이었다. 정우상은 농상공부 잠업과시험장에서 학업을 마친 뒤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잠업강습소 등지에서 수학하였는데, 당시 도쿄잠업강습소는 인공양잠법 창안 세력과 대립하는 형세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우상은 한때 잠업과시험장이나 도쿄인공양잠전습소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양잠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책 〈自序〉에서 인공양잠법에 주목한 사람들 중에서 '인공'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실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할 정도였다.[86] 본문에서는 목적하는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화력을 사용하지 말고 서서히 온도를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자연기온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화력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적절히 개방하여 환기를 중시하되 한랭할 때에는 화력을 사용하여 보온하고 건조할 때는 물을 끓여 보습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형적인 '절충육'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잠실험설』은 서론을 비롯해 잠종, 잠실, 잠구, 사육준비, 누에사육, 잠병예방, 상족 및 수견, 살용건견, 잠종제조까지 모두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츠치야의 원본과 대조해 보면 '잠종'의 순서를 앞으로 이동한 것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내용에서도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데에 치중하여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그대로 두었다. 우리 양잠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거나 설명을 덧붙인 부분이 없는 점이 아쉽다. 원본의 구성 탓이지만 전반적으로 양잠만을 다루고 재상이나 제사 부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도 한계로 지목될 수 있겠다.

이런 이유 탓인지 정우상은 1911년 1월에 『桑樹栽培法』(2-6)을 간행하였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양호한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인 뽕나무 재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뽕나무 심기는 무업자나 농가의 부업에 적당하며 궁극적으로 "殖産의 道"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86) 鄭宇相 編, 『養蠶實驗說』, 蠶業廣達會社, 1908, 2면. 이 발언은 절충육을 보급하려 했던 일제의 양잠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태도가 나중에 그가 권업모범장 용산지장의 기수로 임명되는 데에 일정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朝鮮總督府官報』 제199호, 1911.5.2.

다.[87] 식산흥업운동의 영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전술하였듯이 정우상은 『양잠실험설』을 편찬할 때 누에 사육법만을 다루고 사료 부문에 해당하는 뽕나무 재배법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 책을 발행한 것 같다. 이 책은 뽕나무의 품종, 토질, 비료는 물론이고 채묘, 재식, 입묘, 배양 등 구체적인 재배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병충해까지 다루어 뽕나무 재배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양잠회사뿐만 아니라 실업교육기관에서도 양잠서적을 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文錫琬이 지은 『新訂蠶業大要』(2-2)가 주목된다. 이 책에는 서문이 실리지 않아서 작성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석완은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 졸업생인 것 같다.[88] 그렇다면 『신정잠업대요』는 그가 용산양잠강습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합쳐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문석완은 역술이 아니라 저술이라고 표기하고 "新訂"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다.

문석완은 강습소 졸업 이후 실업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졸업동기생들과 함께 보성소학교 내에 잠업강습소를 설치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잠우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후 강습소의 명칭을 신흥잠업강습소라고 불렀는데, 처음에는 2~3개월 야학과정으로 운영하다가 제3회 입학생 모집 때부터 교습기간을 7개월로 늘리고 이름을 신흥농업강습소로 바꾸었다.[89] 그런데 신흥농업강습소는 1909년 10월에 중부 박동 흥사단 내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한번 변신을 도모하였다. 당시 유길준은 신식교육과 식산흥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흥사단을 조직하여 열렬히 활동하던 중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양잠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90]

---

87) 鄭宇相, 『桑樹栽培法』, 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1-2면.

88) 문석완은 임대규, 이응주, 박승운, 김병제 등과 함께 잠우회를 결성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1907년 대한부인회 용산양잠강습소 졸업생이었다. 『大韓每日申報』 1909.8.21. 그런데 당시 졸업생명단에는 文錫琬은 없고 文錫瑗(평북 용천, 24세)이란 이름만 있는데, 文錫瑗은 文錫琬의 오식으로 보인다. 「大韓婦人會蠶業講習卒業式」, 『韓國中央農會報』 1-4, 1907.10, 51-52면. 서북학회 회원이던 문석완의 출신지가 문석원과 동일한 평북 용천이라고 기록된 사실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會計員報告 第三十號」, 『西北學會月報』 13, 1909.6, 68면.

89) 『皇城新聞』 1909.7.11, 8.17; 『大韓民報』 1909.7.11, 7.23, 8.31.

이 때문에 강습소를 흥사단 산하의 실업교육기관으로 편입시켜 적극 지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강습소의 명칭은 다시 융흥농림강습소로 바뀌었으며, 소장에는 유길준이 취임하고 학감에는 문석완이 임명되었다.[91]

이런 배경으로 인해 문석완이 저술한 양잠서적들은 자신이 몸담은 교육기관들과 관련이 있었다. 『신정잠업대요』를 간행한 보성관은 당시 보성 계열학교들의 교재를 전문으로 제작하던 출판사였다.[92] 신흥잠업강습소는 보성소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보성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다. 『신정잠업대요』는 1909년 7월 5일에 발행되었는데, 이때는 잠업강습소의 개설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책이 잠업강습소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출판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정잠업대요』의 구성을 보면, 먼저 누에의 생리, 잠병, 잠실 및 잠구, 잠종에 대해서 설명한 뒤 최청, 소립, 급상, 除沙, 분박, 상족, 수견, 살용 등 누에사육과정 전반을 다루고 마지막에 제사법과 재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대한제국 후기에 나온 양잠서적 중에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대한제국 전기를 대표하는 양잠서적 『잠상휘편』에 비견될 정도이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일제가 권업모범장을 통해 간행한 양잠서적에서는 製絲法을 매우 소략하게 처리했는데 『신정잠업대요』는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누에사육과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춘잠, 하잠, 추잠의 양잠표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다만 실내온도를 화씨 65~70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점에서 볼 때 '절충육'을 따르고 있었던 사실은 다른 양잠서적들과 동일하였다.

---

90) 흥사단에서는 사범학교인 융희학교 이외에 실업교육기관으로서 수진측량학교와 융흥농림강습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尹炳喜, 「兪吉濬의 興士團 運營」, 『國史館論叢』 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尹炳喜, 『兪吉濬硏究』, 國學資料院, 1998; 兪東濬, 『兪吉濬傳』, 一潮閣, 1997; 최덕수, 「대한제국기 융희학교의 학사운영과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 『韓國史學報』 68, 고려사학회, 2017. 전술하였던 고위관료들과 유력 상인들이 양잠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일 때 유길준도 가담하고 있었다. 『官報』 제4756호, 1910.8.13.

91) 『大韓每日申報』 1909.10.12.

92) 권두연, 「보성관의 출판 활동 연구-발행 서적과 번역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신흥잠업강습소가 융흥농림강습소로 개편된 뒤에도 『신정잠업대요』는 계속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당시 교육과정을 보면 잠업대요와 작잠학이 주요 과목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93] 문석완이 『最新柞蠶學』(2-3)이란 책을 별도로 저술한 것은 바로 이 작잠학 과목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최신작잠학』은 당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산누에 사육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했던 점에 특징이 있다. 권업모범장에서 간행한 『작잠사양법』과 비교하면 다양한 부문에서 훨씬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잠사양법』이 실제 사육법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면, 『최신작잠학』은 작잠의 이론과 실제 사육법을 조화롭게 다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팽나무, 밤나무 등 작잠에 활용할 다양한 수종의 특성과 재배법을 도판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작잠의 형태, 병해, 천적,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작잠의 구체적인 사육법에 이어 제사법까지 다루었다.

전술하였듯이 대한제국 후기에는 일제에 의해 작잠사육이 적극 장려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던 상태였다.[94]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전술한 니와 시로의 『실험작잠론』을 번역한 원고가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95] 농업모범장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작잠사육법』의 원고 일부가 전재되기도 했다.[96]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작잠은 가잠과 비교해 사육법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야생에서 기르기 때문에 대규모 사료수림을 갖추어야 가능한 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규모로 기르기보다는 기업적으로 대규모 사육하는 편이 적합했다. 그런데 작잠사육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며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고, 당시 고양되고 있던 식산흥업운동의 열기와 맞물리면서 투자를 더욱 부추겼다.[97] 대한제국 후기에 들어서 작잠회사가 우후죽순

93) 『大韓每日申報』 1909.10.17.

94) 일각에서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작잠업에 뛰어드는 투기적 과열 양상을 심각히 우려할 정도였다. 華城蠶史, 「柞蠶業者に一言す」, 『韓國中央農會報』 4-5, 1910.5, 40-41면.

95) 全載億, 「柞蠶實驗論」, 『西北學會月報』 8, 1909.1, 26-31면; 全載億, 「柞蠶實驗論(前號續)」, 『西北學會月報』 9, 1909.2, 38-46면; 全載億, 「柞蠶實驗法(續)」, 『西北學會月報』 11, 1909.4, 37-44면.

96) 「柞蠶飼育法」, 『畿湖興學會月報』 10, 1909.5, 30-32면; 「柞蠶飼育法」, 『畿湖興學會月報』 11, 1909.6, 37-40면; 「柞蠶飼育法」, 『畿湖興學會月報』 12, 1909.7, 34-36면.

생겨났던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성 동부 양사동에 거주하는 이병현이 중심이 되어 작잠합자회사를 조직하기도 하였고,[98] 한성 중부 전동에 거주하던 한용찬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대한작잠조합을 조직하기도 했다.[99] 1910년 2월에는 이재극, 이근상, 이중하, 이봉래, 이승우 등 고위 관료 출신들과 일본인 니토 카츠로(日戶勝郞)가 합동하여 자본금 10만원의 거대 회사인 한국작잠주식회사를 만들기도 하였다.[100] 이 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되 전국 각지에 지소를 설치하고 50개소 2,500정보에 사료수를 식재하여 4년 안에 작잠을 사양할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101] 당시 식산흥업운동 열기 속에서 설립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의 자본금이 6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다.[102]

대한제국 후기에 간행된 작잠 서적들은 바로 이 회사들과 관련이 있었다. 우선 이병현의 작잠합자회사에서 발행한 서적이 『柞蠶飼養法』(2-4)이었다.[103] 『작잠사양법』은 본문이 15면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책자였는데, 작잠 사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모아서 만들었다. 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작잠사육시에 동물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미립자병, 연화병을 예방해야 하며 바람이 센 곳을 피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사항을 수록하는 등 작잠사육시 유의해야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뒷부분에는 1908년 경기도 양주에서 봄, 가을 2회에 걸쳐 직접 작잠사양을 시험한 결과를 정리하여 작잠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으며, 니와의 『실험작잠론』에서 발췌한 〈작잠경과표〉를 부록에

97) 작잠업에 투자하면 2,3백원의 자금으로 수천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권유하는 논자도 있었다. 「柞蚕營業에 對ᄒᆞ야 勸告我地方同胞」, 『西北學會月報』 15, 1909.8, 1-2면.
98) 『帝國新聞』 1908.12.12; 『皇城新聞』 1908.12.13; 『大韓每日申報』 1908.12.16.
99) 『皇城新聞』 1909.5.12, 5.13, 5.14, 5.18; 『大韓每日申報』 1909.5.18; 『大韓民報』 1909.7.16.
100) 「韓國柞蠶會社設立」, 『韓國中央農會報』 4-2, 1910.2, 52면; 『官報』 제4599호, 1910.2.10.
101) 한국작잠주식회사에서는 작잠사양법과 조사법의 실지견습을 위해 청국 옌타이에 사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皇城新聞』 1910.3.9.
102) 오미일,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푸른역사, 2014.
103) 『皇城新聞』 1909.2.24; 『大韓每日申報』 1908.12.16, 1909.2.24.

수록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었다.

한편, 대한작잠조합에서 발행한 서적이 바로 『柞蠶飼養新書』(2-5)이다. 이 책은 서지사항이나 판권지가 없기 때문에 발행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신문에서 대한작잠조합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적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04] 현재 두 개의 판본이 있는데, 충남대 소장본(2-5-①)과 국회도서관 소장본(2-5-②)은 필사본과 활자본이라는 점에서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아마도 활자본을 필사한 책자가 별도로 유통되었던 것 같다. 활자본 기준으로 본문이 50면에 달하기 때문에 『작잠사양법』(2-4)에 비해서는 훨씬 두껍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작잠수의 종류와 재배법, 작잠의 사양법, 잠종 저장법, 잠병, 제사법 등을 중국의 사례에 비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후반부는 권업모범장에서 발행한 책자들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야마다 히카루(山田熙)가 북한지역에서 실제로 작잠을 친 경험을 기록한 글과 전술한 나가오카의 『작잠사양법』(1-5)이 국한문체로 실려 있다.[105]

앞에서 소개한 문석완이 지은 『최신작잠학』이 상대적으로 이론지향적이라면, 작잠회사들과 관련이 있던 『작잠사양신서』와 『작잠사양법』은 실제 사육법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였다. 지식전달이 목적인 교육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한제국 후기에 한국인들에 의해 간행된 양잠서적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산흥업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민간회사나 실업교육기관에 의해 간행된 양잠서적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제의 양잠정책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업모범장이 제시한 양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집누에 사육은 대부분 '절충육'에 근거하고 있었고, 인공양잠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취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일제가 만든 양잠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인물들이 주도하여 제작한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작잠사육과 관련한 서적들이 대거 발행된

104) 『皇城新聞』 1909.5.12, 5.13, 5.20.

105) 山田熙, 「北韓の柞蠶」, 『韓國中央農會報』 호외, 1907.12, 23-31면; 長岡哲三, 「柞蠶飼養法」, 『韓國中央農會報』3-2~3-7, 1909.2~7.

사실도 주목된다. 이 경우에도 대체로 권업모범장에서 제시한 사육법을 따르거나 아예 간행한 서적을 그대로 전재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식산흥업운동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양잠서적이 제작되고 있었지만, 일제가 추진한 양잠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었다.

##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대한제국 후기에 일제가 주도한 양잠정책의 전개과정과 이 시기에 간행된 양잠서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군사점령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농상공부 잠업과에서 양잠진흥정책을 추진하여 거둔 성과는 부정하고 말살하였다. 사실 대한제국 전기에는 잠업과시험장을 중심으로 인공양잠법을 도입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양잠서적을 간행하고 있었다. 또한 내장원경 이용익이 주도하여 용산에 설치한 잠사업 진흥기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는 이 모두를 폐지하는 대신 친일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를 통해 용산양잠강습소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운영권은 통감부를 위시한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수원에는 권업모범장을 만들어 메이지기에 형성된 일본식 양잠법을 한반도에 이식하고자 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각지에는 일본식 양잠법을 전파할 잠업전습소가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일제는 종묘장과 치잠공동사육소를 만들어 상묘와 잠종, 그리고 새로운 양잠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는 통로로 활용했다.

일제는 본국이 세계적인 생사수출국으로 도약하고 있던 사정을 감안해 보호통치 하에 놓인 한국에게는 원료인 누에고치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누에고치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는 초기부터 사육법의 통일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양잠서적들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

하게 여겨진 양잠서적은 『잠상요의』와 『작잠사양법』이었다. 이 책자들은 잠업전습소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나갔다.

새로운 양잠기술에는 당시 일본에서 주류로 자리를 넓혀가던 절충육이 선택되었다. 당시 일본의 양잠기술은 사육온도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온난육, 청량육, 절충육 등의 세 계통으로 나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경제성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절충육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한편, 『잠상요의』에는 제사 관련 부분이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일제가 한국인 양잠농가에게는 누에고치의 생산만을 맡기고 제사작업은 일본에 있는 기계제사공장에 맡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또한 『작잠사양법』의 간행에서 보듯이 일제는 작잠 사육을 강력하게 장려하였는데, 여기에는 본국에서 작잠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후나 풍토가 작잠 사육에 적합하지 않아 물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에 작잠 생산을 맡기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일제의 양잠정책은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세간에는 적자생존, 우승열패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제국이 국권을 회복할 방안은 식산흥업, 신식교육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문명개화하는 방법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시각 아래 양잠업은 국부를 늘릴 좋은 수단으로 여겨져 한국인에 의해 다수의 양잠서적이 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양잠서적들은 일제의 양잠정책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업모범장이 제시한 양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집누에 사육은 대부분 '절충육'에 근거하고 있었고, 인공양잠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취했다.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작잠사육과 관련한 서적들도 대거 발행되었다. 경제적 실력양성만을 추구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는 등한시했던 이 시기 식산흥업운동의 성격이 양잠서적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 ▮ 참고문헌

『帝國新聞』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大韓民報』
『每日申報』
『萬歲報』
『官報』
『朝鮮總督府官報』
『韓國中央農會報』
『朝鮮農會報』
『朝鮮之實業』
『蠶事報告』
『勸業模範場報告』
『朝鮮總督府月報』
『大韓興學報』
『西北學會月報』
『太極學報』
『大韓學會月報』
『畿湖興學會月報』
『西友』

丹羽四郎,『實驗柞蠶論』, 丸山舍, 1903.
大森順造・岩田次郎,『日本蠶業革進策』, 蠶業之燈社, 1899.
梁在璣,『朝鮮副業全書』, 朝鮮副業奬勵會, 1923.
馬場恒吾,『木內重四郎傳』, 株式會社ヘラルド社, 1937.
宋炳基 외,『韓末近代法令資料集Ⅲ』,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_____,『韓末近代法令資料集Ⅳ』,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式田淸三,『朝鮮農業要覽』, 日韓書房, 1911.
岩淵平介・長岡哲三,『通俗蠶病豫防法』, 明文堂, 1903.
岩田次郎,『通俗養蠶術講義』, 蠶業之燈社, 1900.
尹泰重,『朝鮮農業大全』, 中央興農會, 1918.
林驛作,『韓國蠶業調査復命書』, 農商務省農務局, 1905.
鄭宇相 編,『養蠶實驗說』, 蠶業廣達會社, 1908.
鄭宇相,『桑樹栽培法』, 日韓印刷株式會社, 1911.
町田菊次郎,『滿韓蠶絲業調査事項報告書』, 高山社同窓會, 1906.
中村彦,『柞蠶絲輸入稅率增減問題』, 丸山舍, 1903.
靑柳綱太郎,『新朝鮮成業銘鑑』, 朝鮮硏究會, 1917.

『職員錄』, 內閣記錄課, 1908.
『蠶絲要報(甲)』, 東京蠶業講習所, 1905.
『잠상휘편 상』, 1904.
『蠶業之奬勵』, 韓國中央農會, 1910.
『在朝鮮內地人紳士銘鑑』, 朝鮮公論社, 1917.
『朝鮮ノ蠶業』, 朝鮮總督府, 1911.
『朝鮮支那蠶絲業概觀』, 農商務省農務局, 1913.
『朝鮮農務彙報 第三』, 農商工部農林局農務課, 1912.
『統監府施政一般』, 統監府, 1907.

구자옥 외, 『그때 이 사람, 혼다 코스케』, 민속원, 2013.
권두연, 「보성관의 출판 활동 연구—발행 서적과 번역원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7-53면.
權泰檍,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韓國史論』 31,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1994, 213-260면.
_____, 「統監府시기 日帝의 對韓 農業施策」, 歷史學會 編,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一潮閣, 1986.
金英姬, 「大韓帝國時期 蠶業振興政策과 民營蠶業」, 『大韓帝國硏究』 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86, 7-34면.
金度亨, 『大韓帝國期의 政治思想硏究』, 지식산업사, 1994.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2010, 35-54면.
_____,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 연구』,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2009.
김동노, 「근대 초기 서구 경제학의 도입과 식산흥업론」, 『사회이론』 43, 한국사회이론학회, 2013, 265-303면.
김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뽕나무 재배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20.
金英宇, 『韓國 開化期의 敎育』, 敎育科學社, 1997.
김영진·김상겸, 「한국 농사시험연구의 역사적 고찰—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2010, 1-34면.
金榮鎭·李吉燮, 「開化期 韓國農書의 特徵과 新農業技術」, 『농업사연구』 6-2, 한국농업사학회, 2007, 107-128면.
_____, 「개화기 농서의 편찬 배경과 편찬 동기」, 『농업사연구』 7-2, 한국농업사학회, 2008, 265-284면.
柳在坤, 「日帝統監 伊藤博文의 對韓侵略政策(1906~1909)—大臣會議筆記를 中心으로」, 『淸溪史學』 10, 청계사학회, 1993, 203-251면.
박경룡, 「統監府의 조직과 역할 고찰」, 『아시아문화』 18,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79-110면.
朴宰辰, 「대한제국 말기 식산흥업론의 전개와 성격」,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3.
서영희, 「이지용—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친일파99인1』, 돌베개, 1993.
_____,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 출판부, 2003.
오미일,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와 그 경영진」,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푸른역사, 2014.

_____,「한말 식산흥업론의 경제건설 방안과 그 정치적 성격」,『한국근대자본가연구』, 한울아카데미, 2002.
吳鎭錫,「光武改革期 近代産業育成政策의 내용과 성격」,『歷史學報』193, 역사학회, 2007, 39-76면.
_____,「대한제국기 人工養蠶會社와 蠶業課試驗場」,『鄕土서울』85, 서울역사편찬원, 2013, 121-176면.
_____,「대한제국 전기 인공양잠법의 도입과 양잠서적」,『東方學志』197, 국학연구원, 2021, 105-141면.
兪東濬,『兪吉濬傳』, 一潮閣, 1997.
尹炳喜,「兪吉濬의 興士團 運營」,『國史館論叢』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54-77면.
_____,『兪吉濬研究』, 國學資料院, 1998.
이송순,「도쿄(東京)제국대학 농대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농업고등기술관료 그룹의 형성」,『韓國人物史研究』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213-263면.
이영학,「통감부의 농업조사와 농업정책」,『역사문화연구』49, 역사문화연구소, 2014, 81-124면.
이완주,「잠업 기술」,『한국농업 근현대사 제6권 농업과학기술 발달사(상)』, 농촌진흥청, 2008.
전우용,『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丁暻淑,『大韓帝國末期 女性運動의 性格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鄭求先,「統監府期 日本人 官吏 研究」,『國史館論叢』77, 국사편찬위원회, 1997, 125-168면.
최덕수,「대한제국기 융희학교의 학사운영과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韓國史學報』68, 고려사학회, 2017, 7-34면.
『한국의 풍혈』, 국립수목원, 2013.
『韓國蠶絲技術發達百年史』, 韓國蠶絲學會, 2000.

加藤伸行,「明治中期西日本地域における養蚕伝習所の活動と養蚕技術」,『歴史と経済』56-1, 政治経済学・経済史学会, 2013, 32-40면.
鈴木芳行,『蚕にみる明治維新 : 渋沢栄一と養蚕教師』, 吉川弘文館, 2011.
滝沢秀樹,『繭と生糸の近代史』, 教育社, 1979.
松村敏,「養蠶・解題」,『明治農書全集 第9巻』, 農山漁村文化協會, 1983.
松浦利隆,『在来技術改良の支えた近代化 : 富岡製糸場のパラドックスを超えて』, 岩田書院, 2006.
手打明敏,「明治期養蚕伝習所の技術普及活動と農民の学習」,『淑徳大学研究紀要』18, 淑徳大学総合福祉学部, 1984, 111-128면.
_____,「明治前期における養蚕改良団体の技術普及活動」,『淑徳大学研究紀要』20, 淑徳大学総合福祉学部, 1986, 187-208면.
佐々木隆爾,「朝鮮における日本帝国主義の養蚕業政策-第1次大戦期を中心に」,『人文学報』114,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76, 107-134면.
土金師子,「明治前期における日本養蚕業の技術的動向と「養蚕標準表」」,『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15, 日本女子大学大学院, 2009, 29-49면.
_____,「明治期の日本養蚕業と養蚕書」,『日本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26, 日本女子大学大学院, 2020, 41-55면.
土井浩嗣,『植民地朝鮮の勧農政策』, 思文閣出版, 2018.

【Abstract】

## Sericulture Policy and Sericulture Books during the Late Daehan Empire Period

Oh, Jin-Seok*

This article examines sericulture industrial policy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sericulture books that were published during the late Daehan Empire period. After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 Empire militarily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ed the sericulture industry in Korea to establish Korea as a supply center for silk cocoons. The Station of Encouragement of Industry Model [Gwoneopmobeomjang (hereafter, SEIM)], the Yongsan Sericulture Training School of the Daehan Women's Association, and local sericulture training schools were established and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promotion of the sericulture industry. The Japanese decided to standardize breeding methods to maintain the quality of the cocoons from the initial stages of production and settled on the compromise method rather than the artificial sericulture method. SEIM published the Essentials of Sericulture Methods [Jamsangyoyui] and disseminated the compromise method. Moreover, the Japanese published the Tussah Breeding Method [Jakjamsayangbeop] and gave Korea the role of supplying tussah cocoons.

Japanese sericulture poli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Korean people who believed that the Daehan Empire had to quickly implement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and new education. The number of Korean people involved in sericulture increased gradually and they published various sericulture books. However, these sericulture books did not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sericulture technology established by SEIM, because they were published in line with Japanese sericulture policy.

Keywords: Daehan Empire, sericulture policy, sericulture books, The Station of Encouragement of Industry Model, the Industry Development Move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Paichai Univ.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10.